

다산포럼



이기영 호서대 명예교수

기후 위기 비상 촉발을 듣자

는 인간의 무한 탐욕을 부채질한 산업화와 화석연료 남용,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결과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돼 인류 문명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생태계 파괴가 부를 끔찍한 공멸을 막기 위해 이제 거꾸로 역성장도 불사할 기후 위기 비상 촉발을 들어야 한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80만 년 동안 180~280ppm을 유지하다가 산업혁명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90년대에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며 급증해 2015년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다. 2018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인천 송도 2015년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다. 2018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인천 송도 2015년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다. 2018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인천 송도 2015년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이 되면 화석연료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당시 학자들은 1.5도를 돌파하는 시점이 2035~2045년이 될 거라고 보

았지만, 갑자기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5월 측정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세계 평균 417ppm으로 지난 1만 년 동안 평균치의 두 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세계기상기구가 앞으로 5년 이내에 1.5도를 넘을 확률이 24%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고려되지 않은 변수가 더 많이 있다. 사베리아 동토는 대기의 두 배 넘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구가 더워져 대량으로 배출돼 티핑포인트(임계점)에 이르면 연쇄반응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지은 상승으로 지하의 고체 메탄까지 가스로 분출돼 대폭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점이 온실가스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2도도 위험하다며 상승 제한 폭을 1.5도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 각국이 이미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문명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7월 프랑스와 영국은 오는 204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르웨이도 2025년부터 100%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시내 지상 주차 공간 6만 개를 없애고 대신 자전거 도로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으로 재선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그린뉴딜이란 미명으로 최악의 온실가스원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석탄발전소를 계속 더 짓고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탈석탄이나 탈탄소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대기 질은 OECD 36개국 중 35~36위,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1개국 가운데 58위로 세계 4대 '기후 강패 국가'(climate villain)로 불린다.

기후 위기는 지나가는 위험이 아니라 일단 드러나면 가속화되고 중국엔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끔찍한 위험이다. 이제 우리도 근시안적 자국 중심의 일방 경제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때다.

기고

코로나19와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



조옥현 전남도의회 의원

건강을 잃을 두려움에 더해 만일 내가 코로나19에 걸려 내 자녀와 가족에게 전염시키면 어쩌나? 내가 속한 직장에 피해를 주면 어쩌나? 내가 접촉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상당히 이타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인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에 따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도 6단계를 거치면 연결된다'고 한다. 중간에 최대 5명의 지인만 있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디지털화, 알고리즘 등 IT기술 발전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의 친구가 3천 명 있으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통해 몇 단계만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측근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권력으로 국정 농단을 일삼을 때 분명히 일어나 촉발을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법과 제

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누구나 전염병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실제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다 같이 공감할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늘어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배달 폭주족으로 인해 오토바이 사고가 12% 가량 증가했다는 기사도 있다. 한 분이 아쉬워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한 사례도 있다.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치면 알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한 명이 열 명이 되고 열 명이 수천 명이 되는 기하급수적 전파력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연대 의식, 공동체 회복, 아니 우리가 모두 공동 운명체라는 것에 대한 성찰이다. 지인 추천으로 얼마 전에 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한다. 중학교에 입학한 트레버는 사회 선생님이 내 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숙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긴다. 주인공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도움 주기'라는 것이다. 무언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해 주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른 세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도움을 베푼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에 너무 겁을 먹고 있는지 모르다. 그래서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포기야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을 전파할 수 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나비 효과 이론도 있지 않은가.

청춘 특·특

또 다른 재앙의 시작



임혁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4년

리게 되었다. 커피 잔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온갖 브랜드가 적힌 플라스틱 컵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매일 아침 쓰레기통을 비우는 분들의 수고스러움에도 이 만큼의 플라스틱이 매일 쌓인다고 생각하니 출석 도장 같은 컵들이 부끄러웠다. 나는 고작 두 달 사이에 앉은기를 넘길 정도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내 댄에는 플라스틱 컵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고 열심히 텀블러를 들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다. 우연찮게 길바닥에 버려진 마스크들이 눈에 들어왔다. 커피가 우리의 주식이 된 것처럼 상이나 하의같이 취급된 것이 마스크인지는 신기할 게 하나 없었다. 그럼에도 길바닥에 버려진 마스크는 꽤나 이질적이었다. 분명 길 위의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벗지 않을 텐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많은 마스크들을 바닥에 버리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 마스크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에 중요하겠지만는 걱정이 되는 것 몇 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다는 것이다. 태풍이 불면 분명 거리 위 쓰레기들, 특히

이제는 주식이 되어버린 커피를 하루 아침에 포기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생명과 직결된 마스크 사용을 줄이는 건 더 더욱 어렵다. 하지만 한 명이 갖고 있는 텀블러 하나가 잠재적으로 매년 66개의 플라스틱 컵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일회용 마스크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면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의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발표된 필터 장착 수제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의 방역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전기 필터가 장착 가능한 이중 수제 면 마스크 경우 KF 80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 방역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플라스틱 컵과 서로의 생명을 위한 마스크가 어딘가의 다른 생명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인터스텔라'의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는 대사처럼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社說

달라진 국정원 5·18 진상 규명 기대된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찾아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긴급 회의를 가졌다. 과거 5월의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 온 기관이 5월단체들을 공식 초청해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다.

박지현 국정원장은 엿그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관계자,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은 그동안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색·발굴한 3389쪽 분량의 기록물 45건과 영상 자료 1건을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상·실종자 및 무기 피탈 관련 20건, 북한 개입설 관련 25건 등이 포함됐다.

5월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정원이 갖고 있는 5·18 관련 비공개 자료들을 적극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80년 당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와 장세동 안기부장의 행정 등과 관련된 자료를 비롯해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5·18 대책 관련 문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국가의 안위 문제 등과 관련이 없다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80년 5월 당시 광주 화정동에 전담지부를 운영하며 5·18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했다. 국가안전기획부 이름을 바꾼 장세동 부장 시절에는 '80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5·18 왜곡에 개입했다. 특히 그동안 10여 차례의 5·18 진상 규명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은 박 원장 취임 이후 달라진 국정원의 태도를 실감케 한다.

국정원은 정보 조직 특성상 5·18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박 원장이 약속한 대로 적극적인 자료 공개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거의 과오를 바로 잡는 길이다.

거리 두기 다소 완화됐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한 것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고려한 교육 지적인 셈이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어제 준3단계 조치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진 7개 중점 관리 시설에 대해 이날 정오부터 집합 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제한적 영입이 가능해진 시설은 300인 이상 대형 학원·놀이공원·공연장·민간(공공 제외) 실내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청소년 수련시설·멀티방·DVD 방 등이다. 하지만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 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나오면 다시 집합 금지 시설로 변경된다.

이들 시설은 그러나 2단계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된다. 대형 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멀티방·DVD방·공연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야구장·당구장·볼링장 등은 실명·레인업 2인 이하만 허용된다.

광주시가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했지만 아직도 전체 확진자 481명 중 절반이 넘는 243명이 무증상이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도 29명이나 된다. 언제든 방심하면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업주들도 또다시 영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출입자 명부 관리나 최소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코로나19 확산 위기 국면에서 협치 등을 내세우며 합리적 리더십으로 당대 착근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두 가지 난제에 봉착했다. 4차 추경에서의 통신비 지원 문제와 추미에 법무장관 아들 특혜 논란 이슈가 그것이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난 지원금을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쏘 주는 것"이라며 강경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은 "형량한 방안"이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결단의 리더십

비판적 목소리는 여전히 내뿜고도 나온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는 "골목 상권 매출 등을 늘려 주는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경수 경남 지사는 "차라리 무료와 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심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재는 야당의 대안을 전폭 수용해 '협치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미에 법무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은 방역 문제와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

린 사안이다. 추 장관이 13일 뒤늦게 사과 뜻이 담긴 입장문을 냈고 이 대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고 했지만 그리 쉽게 진화될 것 같진 않다. 대정부 질문, 인사 청문회, 국정 감사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 장관의 진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50.0%)가 긍정 평가(45.6%)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 33.4%, 국민의힘 32.7%로 양당의 격차는 1%포인트 이내로 근접했다. 이는 추 장관 문제가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민심을 이기는 리더십은 없다. 위기를 민심과 함께 돌파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 대표가 어떠한 결단으로 '위기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대권의 길을 개척해 나갈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